

# 長興天冠寺新羅石燈

鄭明鎬

全國에 散在하여 있는 石燈을 調査하던중 一九六八年夏 全南道長興郡 冠山面龍田里에 所在하고 있는 天冠寺에서 數點의 石物을 初見한 바 있어 이를 紹介하여 보고자 한다.

天冠寺는 標高 七二二m의 天冠山 支脈中腹에 있으며 南西方에는 天台山的 標高四六四m되는 陽岩峰이 건너 보이고 있다.

이 天冠寺가 所在하는 곳에서 西로는 康津郡七良面과 接하고 있는데 境界인 標高一六五m의 『골치개』를 넘으면 쉽게 康津郡七良面明珠里를 거쳐 大口面龍雲里에 所在하고 있는 淨水寺로 通하게 된다.

淨水寺 附近에는 이미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高麗靑磁窯址가 散在해 있는 곳으로 有名하며 이곳에서 溪谷을 따라 내려가면 有名한 高麗靑磁 蓋瓦가 發見된 大口面沙堂里에 當到하게 된다.

天冠寺에 對한 文獻資料는 輿地圖書·東國輿地 東國輿地勝覽 地方郷土誌인 支提誌等の 文獻資料가 有。므로 이들을 檢討하면서 寺刹에 傳해오는 二基의 塔과 石燈이 있는데 이 곳에서는 우선 石燈을 學論하여 보고자 한다. (사진 1)

## 二、

앞서 提示한 文獻資料는 十六世紀中葉에 完成된 東國輿地勝覽과 十八世紀中葉에 完成한 輿地圖書를 비롯하여 朝鮮朝 英祖以後 時代에 作成된 것으로 推定되는 支提誌等에서 天冠寺에 關한 資料를 얻을 수 있다.

上記資料中 朝鮮中宗二十五年(1530)에 完成한 東國輿地勝覽에 收錄된 長興都護府 佛字條에 依할 것 같은

天冠寺在天冠山。僧靜明記通天下一氣也。泄爲川。積成山。岳嶺之南濱海之地。古鳥兒縣之境。有天冠山。尾蟠荒陬。首漫大洋起伏。穹窿距數州之壤。其氣積之大者乎。有靈通和尚。嘗夢北岬。從地而湧。所地錫杖。飛過山頂。至北岬而植焉。於髻植髮杖處。剪棒而創伽藍。今天冠寺是也。自寺南而望之。巖石犬奇峭。然而挺立者。幢巖也。突然而孤懸者。鼓巖也。儂然如鞠躬聽受者。側立巖也。跪然如獅子嘖呻者。巖也。纍纍乎。如供具釘餽者。上積下積巖也。巍巍乎。中峙而獨存者。舍那岩也。峩峩焉。分擁而補缺者。文殊普賢巖也。自天冠寺南行五百步。有小庵介子。庵之下。號九精庵。自庵竇緣崖而上。百餘步。有石臺盤陲者。曰歡喜臺。以登陟者。困於危險。憩乎。此則歡喜也。臺前林薄之間。有古路成蹊。尋蹊而上。至山椒四望。豁如也。雪霞證鮮。草木韓縻。殘山利水。排靑螺。曳白練。如指諸掌。自山嶺南走一舍。許有仙窟寺。寺北岩叢。是地所居之處。殆丹崖翁黃石公之流亞也。寺南別峯頭。彌陀庵之北。有靈石。高僅一尋手。推則動。吁可駭也。又有蒲崑。在其西。上有方井。可深一尺。靈泉泓澄。四時不渴。靑蒲數叢。生于石。鐫如有物。護焉。自餘恢詭。譎怪有兀者。亞者。窪者。呀者。崛者。隱伏者。硯。益。萃。确。胚。渾。



사진 1. 天冠寺 石燈

族縮千態萬狀奇哉 異乎 不可彈記也 豈造物者鍾粹於此限以大海而莫之越  
逸乎 噫古人酷愛山水 有蠟屐而上倒驢而還 或信宿忘歸 長往而不返者 非唯  
目差我耳 潺護務快 其情而已 蓋寓意於山水之間 從仁智之樂 獎復其性而  
適其道也云云

라 記錄되어 있으며 同書 山川條에 의할것 같은면

天冠山 在府南五十二里舊號天風或云

이라 하여 天冠山の 舊名과 寺刹의 創建主와 緣由에 對하여 밝히고 있다  
輿地圖書는 英祖末年에 完成된 것으로서 이 곳에 收錄된 長興府 寺刹  
條를 볼것 같은면

「在府南四十里 天冠山下」

라고 簡單히 밝힌뿐 아무러한 資料를 인용할수 없다.

이 輿地圖書보다는 若干 後作으로 推定되는 資料로서는 地方郷土誌인  
支提誌를 들수 있는데 이는 前記資料보다 비교적 상세하고 多量한 資  
料를 提供하고 있다.

이 資料에 收錄된 寺宇條를 살펴 볼것 같은면

天冠寺 以天冠菩薩所住 故名之新羅哀莊王時 即唐德宗朝朝也 有道釋通  
靈和尚者 望異氣自王臺山而來 至遂寧懸南帖眠 且行數里 始語至島次縣  
境小嶺 使卓錫拔一笑大悟 因登西峯 南望茲山 歎曰 西天眞佛 孟在於彼  
○ 今眠峙語山 悟道峙佛徒山 背此得名云○ 就華嚴社大和? 其臺坐處 白  
案眞據山 腰堪輿家 謂之行舟云云

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같이 밝힌 支提誌는 筆寫本으로서 調査當時 天冠寺를 再建에 血  
眼이 된 住持인 張僧尼의 二部를 筆寫하여 한부는 大興寺에 다른 한부  
는 保管하였다가 郡公報室에 保管依頼한 貴重한 資料이다.

大興寺에 傳하였다는 他 支提誌는 現在 東國大學校 圖書館에 收藏되  
어 있다고 한다.

郷土誌인 支提誌의 名稱을 볼것 같은면 佛敎의인 色彩가 매우 濃厚  
한 題名임을 알수 있다.

現在 天冠寺가 所在하고 있는 山名을 가리켜 支提라고 稱하고 있는  
事實을 東國輿地勝覽의 長興都護府 山川條 天冠山 註文중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註文에 依할것 같은면 舊號로서는 天風 或은 支提라고 稱하였던 事實  
을 찾아 볼수 있다.

天冠山을 支提라고 稱하게 된 것은 이 산에 佛跡이 많이 散在하여 있  
을뿐 아니라 山形이나 地勢가 마치 佛塔과 같이 생겼다는 데서 이들의  
特徵을 살펴 支提라는 山名을 붙쳐 支提山이라고 稱하게 된듯 하다.

또한 支提山 밑에 고을의 名稱을 바로 山名을 따라 支提라는 地名을  
갖게 되고 이 고을에 關한 郷土誌의 名稱도 이와같은 緣由에서 붙이게 된  
것.

誌名에 關해 밝힌바와 같이 그의 內容을 살펴 볼것 같은면 天冠山即  
支提山을 中心으로 數 많은 佛跡이 收錄되어 있는 것을 보아 이 支提誌  
는 佛蹟資料의 貴重한 것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 된다.

이 支提誌를 編纂하는데 參考가 된 基本資料는 當時 傳해온 山中古記  
를 비롯하며 大愚師記 天因師記와 같은 僧侶의 傳記等과 그리고 中峯  
寺에 保管되어온 藏記慶州遺事記를 底本으로 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上記한 여러資料중 이 곳에서 注目되는 것은 天冠寺의 創建年代와 創  
建發願者에 對하여 考察해 보아야 할 것이다.

東國輿地勝覽에서는 天冠寺 創建者는 靈通和尚이라고 밝히는 同時 創  
建緣由를 詳細히 알리고 있으나 이 靈通和尚의 在世年代에 對하여는 전  
혀 言及하지 않고 있음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多幸히 支提誌에서 몇가지의 새로운 資料를 提供하고 있으니 그것은  
다른아니라 創建年代를 新羅末 哀莊王時代임을 밝히고 創建發願者는 五  
台山에서 온 通靈和尚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 寺刹은 華嚴宗系統임을 暗示하고 있다.

그러나 東國輿地勝覽과 支提誌에서 밝히고 있는 天冠寺 創建發願者인  
僧侶의 이름을 살펴 볼것 같은면 前者에서는 靈通和尚으로 밝히고 있다

그런데 後者인 文提誌에는 通靈和尙으로 밝히고 있는데서 問題點을 들이 내게 되었다고 하겠다.

即 前者는 靈通 後者는 通靈으로서 通字와 靈字를 바꿔 順序를 달리한 事實을 發見할 수 있다.

이 上記 두 資料중 어느 한 資料가 誤記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밝히기 앞서 집권 年代를 생각 할때 後作은 前者보다는 後作임을 暗示하는 것임을 그 文獻資料속에서 찾아 볼수 있다.

支提誌의 異跡條 註를 살펴 볼것 같으면 輿地勝覽이라는 書名이 記載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워 支提誌를 편찬하였을때 輿地勝覽을 參考하였음을 充分히 暗示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支提誌를 편찬할때 母本으로 삼았던 資料중에 輿地勝覽을 利用한것은 사실이라 하겠으나 이것이 東國輿地勝覽을 가리키는 것인지 또는 다른 資料인지는 確證을 하지 못함은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어쨌던 支提誌는 아마도 東國輿地勝覽보다는 편찬년대가 늦은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靈通을 支提誌 編纂자가 通靈으로 바꿔 記述하였을까 하는 의심을 잡아내겠으나 이 僧侶의 名稱이 다른 대목에서도 亦是 通靈으로 記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誤記라고만 할 수 있는지의 심의되기도 하다.

이 僧侶의 이름에 對하여는 앞으로 철저한 조사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이곳에서는 이정도로 끝이고 石燈에 對하여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 三、

新羅末 哀莊王時 靈通 或은 通靈和尙에 의하여 創建된 天冠寺는 山地 伽藍으로서 現在 遺存되어 오는 遺物로는 石燈을 비롯하여 二基의 石塔이 있다.

上記 石物外에 幢竿支支柱가 傳해 오고 있었으나 調査當時 이미 廢墟化된 寺址에 한 愚侶이 새로운 舍屋을 新築하면서 幢竿支支柱를 破壞하여

築台를 쌓는데 使用하는 것을 보았다.

新舍屋을 新築하면서 放置되었던 二基의 石塔중 比較的 完全한 石塔一基와 石燈을 原位置로부터 現位置로 移建하였다. 이 石燈은 典型的인 新羅時代의 八角形으로서 樣式上 變形된 樣式을 취하고 있다.

이 石燈의 特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石燈의 外形은 同郡內에 所在하고 있는 寶林寺 石燈과 類似한 것으로 보아 매우 注目된다. (사진 2)

石燈構造와 部材를 볼것 같으면 地台石은 1m—1.8cm되는 方形板石위에 八角形의 下台部가 安置되어 있다. 各部材의 實測値는 다음表와 같다.  
下台石은 基台部 蓮華下台石部、竿石받침台部(괘임石) 등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竿石部는 八角形의 짧은 石柱로서 그 위에 다시 八角形의 蓮華上台石이 놓여 있다.

上台石 위에는 八角形의 火舍石과 그위에 八角形의 屋蓋石 그리고 寶珠形의 相輪等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 石燈에서 注目되는 部分은 下台部로서 基台部가 蓮華下台石보다 幅이 좁고 蓮華下台石위에 設置된 八角의 內曲된 楕圓을 가진 竿石받침台(괘임石)를 갖추워 있는 樣式이라 하겠다.



사진 2. 寶林寺石燈

基台部를 살펴 볼 것 같으면 八角으로서 上端과 下端에는 턱을 이룬 甲石과 底台를 刻出하였으며 基面에는 各各 一個씩의 眼象을 裝飾하였다.

眼象은 新羅統一 中期以後에 흔히 볼 수 있는 樣式으로 左右孤의 果를 갖추워 있는 것으로 이 眼象과 同系 樣式을 볼 수 있는 것은 甘山寺址石燈下台石、四天王寺址北端에 있는 石燈下台石 石窟庵石燈下台石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以上の 基台는 方形이라 하였으나 天冠寺石燈의 基台는 八角形을 따르고 있음이 다르다 하겠다. (圖 1)

蓮華下台石는 亦是 八角平面上에 複瓣八葉紋을 浮彫하였으며 이 蓮瓣의 配置는 八角의 角部를 軸으로 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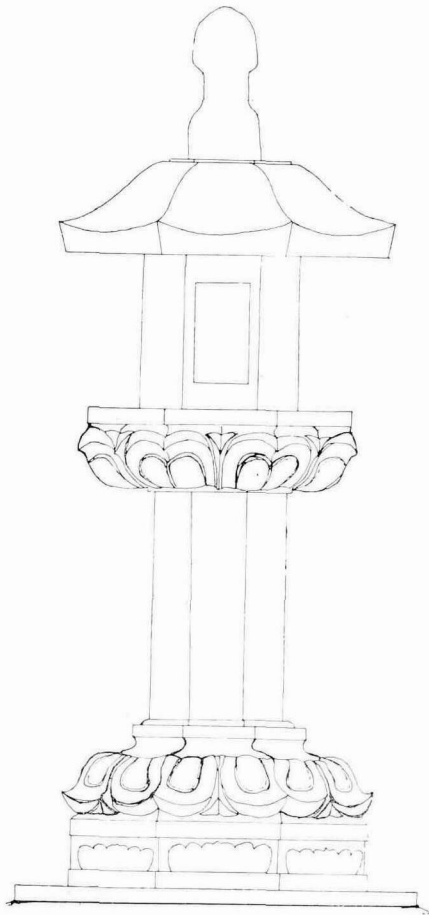


圖 1. 天冠寺石燈實則圖

名稱		實測直 (cm)	換算尺 (曲尺)	造形尺 (唐尺)	備考	
下 台 石 部	地伏石	一邊長	118cm	3.894	3.973	
	基台	一邊長	36	1.188	1.213	
		徑	93.6	3.801	3.878	
		幅	81.6	2.693	2.737	
		高	19	0.627	0.63	
	薄華台	一邊長	38	1.254	1.381	
		徑	98	3.234	3.279	
		幅	90.4	2.775	2.832	
		高	19.3	0.636	0.648	
	받침 台 (고임돌)	一邊長	21.5	0.709	0.723	
		徑	56	1.848	1.885	
		幅	51	1.683	1.717	
高		10	0.33	0.33		
竿石받침	一邊長	18.7	0.617	0.620		
	徑	49.8	1.643	1.676		
	幅	45.3	1.495	1.515		
	高	1.6	0.052	0.053		
總	高	49.9	1.646	1.679		
竿石部	竿柱	一邊長	16.2	0.534	0.544	
		徑	42	1.386	1.415	
		幅	38.6	1.273	1.297	
		高	67.5	2.227	2.272	
上 台 石 部	上台받침	一邊長	17.6	0.58	0.591	
		徑	45.6	1.504	1.637	
		幅	41.8	1.379	1.407	
		高	1.7	0.056	0.057	
	蓮華台	一邊長	33.5	1.105	1.127	
		徑	89	2.937	2.078	
		幅	82	2.706	2.761	
		高	18.5	0.61	0.622	
	火舍台	一邊長	32.7	1.079	1.101	
		徑	84	2.772	2.826	
		幅	76.8	2.534	2.585	
		高	6.5	0.214	0.218	
總	高	24	0.792	0.808		
火舍部	火舍	一邊長	16.5	0.544	0.554	
		徑	51	1.682	1.750	
		幅	46	1.518	1.549	
		高	46	1.518	1.549	
屋	屋蓋받침	一邊長	23.5	0.778	0.793	
		徑	61	2.013	2.054	
		幅	56.6	1.867	1.905	
		高	1	0.003	0.003	



사진 3. 法住寺拈華堂石燈

名 稱		實測値 (cm)	換算尺 (曲尺)	造形尺 (唐尺)	備 考	
蓋	屋 蓋	一 邊 長	38.4	1.264	1.289	蓋 받 屋 처 高
		徑	108	3.564	3.636	
		幅 高	99.7	3.293	3.36	
	高	30.7	1.013	1.033		
部	相 輪	徑	21	0.693	0.707	
		高	45.5	1.501	1.531	
	總	高	263.6	8.699	8.876	

아 安配하였으며 八角面의 中央部에는 間華를 配置하였다.  
蓮瓣의 形態는 圓形에 近似한 모양을 취한 複瓣으로써 根部는 좁은 反面에 肩部는 比較적 넓다.  
子葉은 廣頭根狹形으로서 內曲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彫刻手法를 볼 것 같으면 廣葉위에 子葉의 輪廓을 마련한 後에 子葉의 登에 該當되는 곳에서 輪廓을 向에 若干內曲形되게 治石하였다.  
그러므로 蓮瓣登의 모양은 中間部分이 比較的 反轉이 심하다.  
한편 間葉또한 根部와 肩部가 넓고 中間이 좁아 마치 X字形을 이루고 있다.  
이상과 같이 浮彫한 蓮華台의 外廓은 基台 밖으로 突出되어 事實的인 蓮華를 描寫한 듯한 印象을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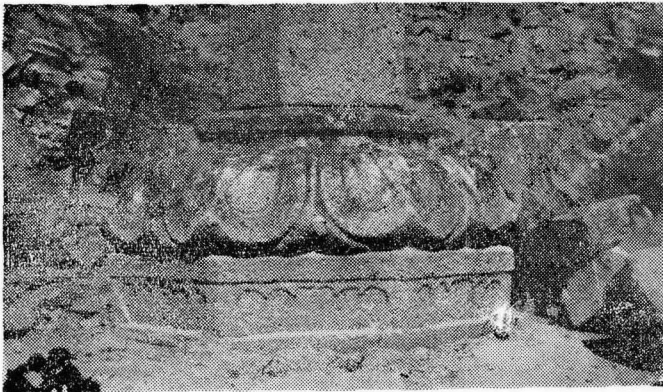


사진 4. 天冠寺石燈下台 石의 곱형(괘임대)과 眼像

이와 같은 樣式은 앞서 言及한 寶林寺石燈을 비롯하여 法住寺拈華堂 앞에 設置된 石燈에서 그 例를 찾아 볼수 있는데 이 天冠寺石燈과 다른 점은 兩基모두 蓮瓣의 先端에 귀꽃이 附加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겠다.  
蓮華台上面에는 낮고 넓은 八角台 받침을 刻出하였으며 그 위에 內曲된 구를 가진 台가 놓여 있다. (사진 4, 5)  
台上에는 二段의 竿台받침을 陽刻하였는데 下段의 mouldings를 이루고 있으며 上段은 形式의 竿柱石 받침대는 內曲된 곱형받침대를 具備한 石燈으로서 典形的인 八角石燈에 있어서는 榮州浮石寺 無量壽殿 앞에 놓여 있는 石燈에서 그 例를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사진 6, 7)  
이외에 石燈에서는 鼓腹型 竿柱石을 갖추워 있는 石燈에서 흔히 찾아 볼수 있는 樣式이며 大中에서 咸通年間(847~873)에 製作된 浮屠와 佛像台座에서 그 例를 흔히 찾아 볼수 있는 樣式이라 하겠다.  
佛像台座에서 찾아 볼수 있는 樣式은 咸通四年頃에 造成되었을 것으로 推定되는 桐華寺 毘盧庵에 安置된 石造 毘盧舍那佛像의 中台石을 받치고 있는 괘임石을 비롯하여 咸通六年의 到彼岸寺 鐵造 毘盧佛像의 台座 咸通八年

의 鷲棲寺 石造毘盧舍那佛像의 台座、榮州北枝里石造如來와 毘盧舍那佛 台座、豊基 毘盧庵의 石造如來坐像과 毘盧舍那佛像의 台座、順興 聖穴 寺石造毘盧舍那佛像의 台座、靑龍寺石造如來坐像의 台座、佛谷寺石造毘 盧舍那佛、善山海平面石造如來坐像等의 台座패임을 들 수 있다.

浮屠에 있어서는 新羅時代의 聖住寺、朗慧基尙白月採光塔을 비롯하여 雙峯寺澈鑑禪師塔 禪林院址 弘覺禪師浮屠、雙谿寺浮屠等에서 패임樣式 을 中台石部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樣式은 高麗初期 浮屠에서는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石塔에 있어서는 大中年間에 重建된 聖住寺址에 遺存되어 오는 四基 의 石塔을 비롯하여 咸通四年銘 舍利蓋이 發見된 桐樺寺 毘盧庵三層石 塔、咸通六年에 造成되었을 것으로 推定되는 到彼岸寺 毘盧遮那佛前三 層石塔에서 패임臺 施設을 찾아 볼 수 있다.

聖住寺址 石塔과 到彼岸寺 石塔에 있어서는 第一層 塔身을 패임한 施 設物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同一한 系統으로서 桐樺寺 毘盧庵三層石 塔에 있어서는 上層과 下層基壇의 面石을 받는 패임臺 施設은 特殊한



사진 5. 浮石寺四菩薩石燈

例로 推定된다.

上述한 三個所의 作品들은 大體로 大中、咸通年間에 製作된 統一新羅 後期의 代表的인 表準型이라 하겠다.

패임臺를 設置한 高麗時代 作品으로서는 普願寺址 五層石塔 月精寺 八角九層塔을 비롯하여 洪武二十一年(1388)의 塔誌銘이 發見된 令 傳寺址 普濟尊者 舍利三層石塔과 江陵神福寺址 三層石塔 弘濟洞五層石 塔 等을 들 수 있다.

朝鮮時代 作品으로서는 襄陽 洛山寺 七層石塔에서도 패임臺樣式을 塔 身의 各層마다 設置한 것을 들 수 있다.

以上과 같은 樣式을 通하여 天冠寺石燈의 下臺石의 樣式을 考察하여 볼 때 이 石燈은 大體로 浮石寺系와 寶林寺系石燈의 樣式的 特徵을 折衝 所產物이라 하여도 過言은 아니라 하겠다.

竿石을 볼 것 같으면 亦是 八角形으로서 從來에 紹介된 典形的인 石 燈에 있어서는 比較的 細長한 竿柱形을 갖추어 있는 반면 이 天冠寺石 燈에 경우를 볼 것 같으면 높이가 낮은 것이 또한 特異하다고 하겠다. 天冠寺石燈의 竿柱石과 같이 높이가 낮은 것은 寶林寺石燈과 梵魚寺 石燈에서 또한 그 例를 찾아 볼 수 있을 뿐이다.

上臺蓮華石은 八角平面上에 單瓣八葉을 下臺와 같이 角部를 軸으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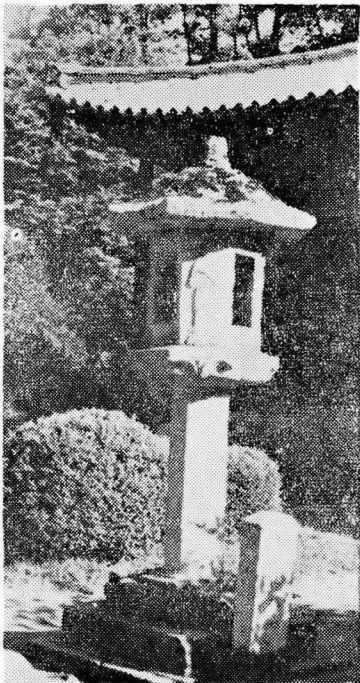


사진 6. 浮石寺四菩薩石燈下臺의 楕圓 패임臺와 眼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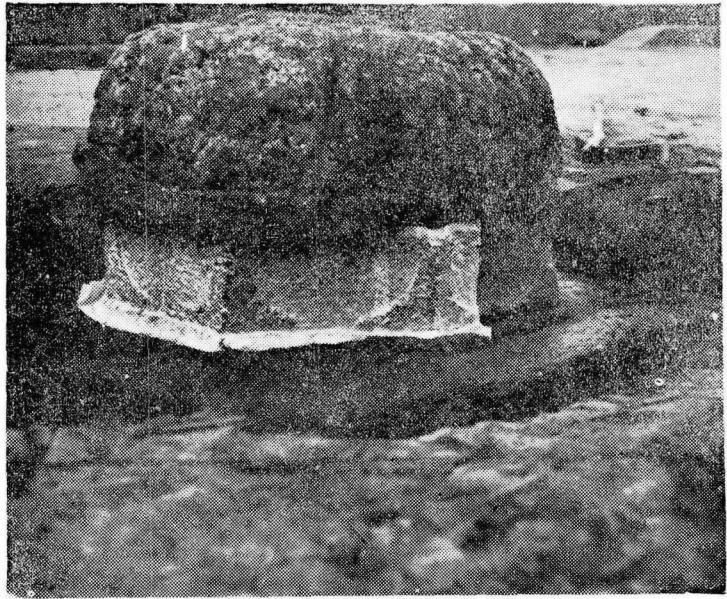


사진 7. 拈華堂前石燈基臺石眼象

어 配置하였는데 底部에는 一段의 上臺받침을 刻出하였으며 上端에는 蓮華臺보다는 좁은 一段의 八角臺를 安置하였다.

이 곳에 彫刻한 蓮華의 모양은 圓形에 가까우며 瓣內의 子葉 또한 輪廓을 마련한 然後에 內部로부터 낮게 彫刻해 들어 간 手法을 찾아 볼 수 있다.

間葉은 根狹肩廣의 字形으로 되어있음은 下臺와 같다.

上面에는 아뜨리한 施設이 없이 平面을 이르고 있는데 이와 같은 樣式은 石燈全盛期를 이르고 있었던 新羅石燈系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樣

式이라 하겠다.

火舎石을 볼 것 같으면 典型樣式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前後左右에 火窓을 配置하고 餘面은 火舎壁으로 되어 있다.

火窓周圍에는 窓을 달기 위하여 釘孔이 둘러 있다.

屋蓋石은 八角形으로서 底面에는 一段의 屋蓋받침이 設置되어 있으며 첨아端은 水平을 이르고 있으며 落水端인 첨아하리는 曲形을 이르고 있으며 兩轉角은 甚하게 反轉되어 있다.

隅動은 角形을 이르고 轉角의 尖端에 있어서도 反轉現象을 보이고 있다.

屋蓋上面에는 相輪받침을 施工하지 않고 平坦하게 治石할 따름이고 그 위에 相輪을 安置하도록 되어 있다.

相輪은 上, 中, 下, 세 부분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下部는 圓筒形의 覆鉢形위에 擦柱가 設置되어 있는 위에 꽃송이 모양의 無刻된 寶珠가 安置하여 있다.

이와 같은 樣式과 類似한 것은 佛國寺石燈을 비롯하여 雲門寺와 浮石寺에 所在하고 있는 石燈에서 그 砲彈形의 相輪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石塔에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類似한 相輪을 具備한 것으로서 는 華嚴寺 孝臺에 놓여있는 四獅子三層石塔과 同寺 東西雙塔에서 그 例를 찾아 볼 수 있을 뿐이다.

以上으로써 天冠寺 石燈의 樣式을 살펴본 마와 같이 部材의 特殊한 時代的인 樣式을 취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다.

#### 四、

以上과 같이 多角的인 方法을 通하여 天冠寺 石燈의 建立年代를 詳考하여 볼 때 優先 文獻資料인 支提志에서 밝힌 마와 같이 新羅 第四十代 衰莊王時代(800~808)에 通靈 或은 靈通和尚에 依하여 開創하였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石燈의 樣式論的인 立場에서 時代的인 特殊性을

찾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天冠寺石燈에서 樣式的인 特性을 한 눈에 드러내 보이고 있는 部分은 말할 것도 없이 下臺石에서 찾아 볼 수 있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下臺石에서 特히 樣式的인 特徵을 들으면 部分은 基臺部와 竿柱石을 받고 있는 굽형의 陪臺石이라 하겠다.

一般的인 基臺部에 比하여 基臺部가 蓮華下臺石의 徑보다 縮少된 現像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樣式이 發生한 時期는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建立年代에 對해서 어느 정도 推定可能한 것은 寶林寺 石燈이라 하겠다.

이 寶林寺 石燈은 一九三三年겨울 盜賊에 依하여 破損된 東西兩塔을 補修하던 중 塔誌가 發見되어 注目된 바 있다. (註1)

이 塔誌에 의할 것 같은 塔의 建立年代는 新羅 景文王十年(4870)에 創建한 後 眞聖王五年(891)에 舍利를 奉納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을 미루워 兩塔間에 設置된 石燈 또한 同年代에 作임은 틀림없는 事實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寶林寺 石燈은 적어도 咸通十一年을 前後한 時代의 作임은 틀림없으며 石燈의 編年設定에 標準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 寶林寺 石燈系를 따르고 있는 作으로서는 法住寺拈華堂 앞에 設置되어 있는 石燈을 들 수 있다. (사진 8)

이 石燈의 造成年代는 明確치 않으나 法住寺가 創建되기는 專恭王代에 生存하였던 眞表律師에 依하여 專恭王二年 大曆元年(766)에 俗離山을 訪問한 然後十七年되던 해인 宣德王四年(A·D·783)에 다시 吉祥草를 찾아와 이 곳에 精舍를 創建하였는데 이때 力事に 主役을 담당한 사람은 그의 弟子 永深임을 알 수 있다.

永深의 在世年代에 對하여는 明確히 밝힐 수 없는 것이 遺憾스러운 일이라 하겠으나 三國遺事 卷四 義解第五 眞表傳簡과 關東楓岳鉢淵鼓石記 心地繼祖等條를 通하 볼 때 永深은 眞表律師의 弟子로서 彌勒信仰을 中心으로 한 法相宗을 널리 普及하고 獎勵한 中心의인 人物임을 알 수 있

다. 또한 永深은 大邱八公山 桐華寺 創建祖인 心地의 스승으로서 그의 法燈을 心地에게 繼承시키고 있을을 알 수 있다.

心地가 桐華寺를 創建한 時期는 興德王 七年壬子(832)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면 永深은 적어도 A·D·783년부터 A·D·832年 사이에 在世하였던 僧侶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永深과 心地가 在世하였던 期間중에 이들이 各各活動하였던 根據地에는 新羅末期에 流行하였던 石造物들이 傳來되고 있다.

이들 石物중에 法住寺 拈華堂앞에 設置된 石燈또한 當代作品으로 볼 수 있겠으나 樣式과 上下臺石에 裝飾을 加한 蓮瓣을 考察하여 볼 때 이는 寶林寺 石燈보다는 拙作으로 보여진다. 또한 製作 順位를 볼 때 寶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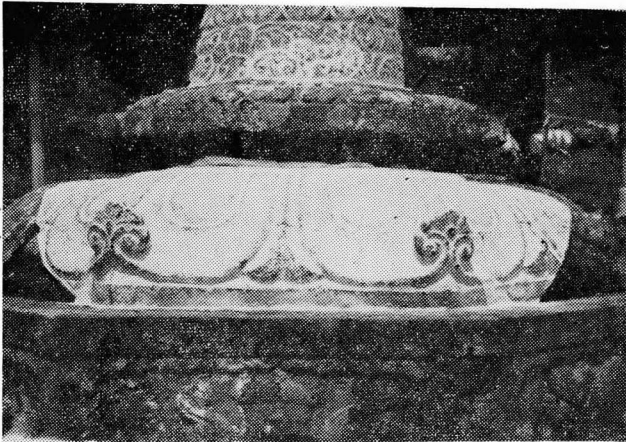


사진 8. 淸涼寺石燈下臺石의 굽형(陪臺)

寺石燈보다 後作으로 推定된다.

두번째로는 楡峯의 陪臺臺가 特殊한 樣式이라 하였음을 이미 밝힌바 있는데 이 樣式을 갖추워 있는 資料는 浮石寺 無量壽殿 앞 石燈과 天冠寺 石燈에 限하여 있을 뿐인데 前者의 樣式은 威通年間에 作品으로 推定한 바 있다.

그리고 세번째로 特徵은 竿柱石의 높이가 짧은 것으로 前述한 法住寺 拈華堂 앞 石燈、鷺棲寺 石燈、寶林寺 石燈、梵魚寺 石燈、符仁寺의 東方寺 址에 傳해 오는 不等邊八角石燈 등에서 그 例를 볼수 있는데 天冠寺 石燈도 이 樣式을 따르고 있다.

이들 樣式도 威通年間에 造成된바 있는 것으로 미르워 이 時期를 前後하여 流行된 樣式임을 알수 있다.

以上과 같이 基臺石、楡峯의 陪臺臺、竿柱石 等を 綜合하여 詳考하여 볼 때 이 天冠寺 石燈은 西紀 八三二年으로부터 西紀 八八八年에 八九才로 入寂한 朗慧和尚 白月椽光塔이 造成되던 時期를 前後한 期間에 造成되었음을 틀림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文獻資料에 보이는 바와 같이 哀壯王時代로 보기는 어려우며 威通年間 造成된 石造物을 通하여 볼 때 類似한 함으로 늦어도 威通年間 或은 그 以前作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即、西紀 八〇〇년부터 西紀 八六〇年 사이에 作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註、

藤田亮策·朝鮮金石瑣談(一、二) 靑丘學叢 第十九輯 1935